

## “미국 상장 계기로 글로벌에 집중” 쿠팡 김범석, 한국 쿠팡 의장 사임



김범석(사진) 쿠팡 창업자가 한국쿠팡 의장직에서 물러난다. 미국 상장을 계기로 해외시장 공략에 보다 전념하기 위해서다.

쿠팡은 김범석 창업자가 쿠팡의 이사회 의장과 등기이사에서 사임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창업자는 뉴욕 상장 법인인 쿠팡아이엔씨의 최고경영자(CEO) 및 이사회 의장으로 글로벌 확장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쿠팡아이엔씨는 한국 쿠팡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쿠팡은 최근 해외 진출의 첫 발을 뗀다. 일본 도쿄 시나가와구 나카노부 지역에서 신선식품과 생필품 등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쿠팡이 해외에서 서비스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장이 글로벌 경영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쿠팡의 해외 진출은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쿠팡은 신규 등기이사로 전준희 개발총괄 부사장과 유인중 안전관리 부사장을 선임했다. 이사회 의장직은 강한승 대표가 맡아 서비스 혁신과 공격적 투자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병근 기자

## GS칼텍스, 국내 최초 탄소중립 원유 도입



GS칼텍스는 세계 최초로 탄소중립 원유 인증을 획득한 스웨덴 에너지기업 룬딘(Lundin Energy)사의 노르웨이 요한스베드럽 해상유전에서 생산된 탄소중립 원유 200만 배럴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룬딘사가 요한스베드럽 유전에서 생산하는 원유는 일반적인 유전의 평균 탄소 배출량보다 40배 낮아(0.45kg CO<sub>2</sub>e/boe)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인 인터텍의 'CarbonClear' 저탄소인증과 탄소 감축 국제인증 기준인 'VCS(Verified Carbon Standard)'의 인증을 받았다. 허세홍 GS칼텍스 사장(사진)은 “앞으로도 기업시민으로서 다양한 친환경 리더십을 통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에코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블레스 언리쉬드 PC’ 8월 7일 스팀 출시



네오위즈는 자체 개발 중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블레스 언리쉬드 PC’(사진)를 8월 7일 글로벌 PC게임 플랫폼 ‘스팀’에 정식 출시한다. 화려하고 목격할 코믹 액션과 오픈 월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보스 및 몬스터들과의 전략 전투, 던전, 다양한 이용자간

전투(PVP)가 특징이다. 5월 진행된 파이널 테스트에는 약 40만 명의 이용자들이 참가해 최대 동시 접속자 수 4만5000명을 기록했다. 현재 스팀 출시 예정작 인기 짐 목록 글로벌 1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사전 예약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

## ‘배그: 뉴 스테이트’ 사전예약 1700만 돌파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뉴 스테이트’의 글로벌 사전 예약자가 1700만 명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구 글로벌 게임 단일 시장에서 중국, 인도, 베트남 지역을 제외한 기록이다. 뉴스테이트는 배틀로얄 장르를 개척한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게임이다. 배틀그라운드만의 정교하고 현실감 있는 건플레이를 담았고, 최첨단 렌더링 기술을 적용해 모바일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준의 그래픽을 구현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알파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게임 제작을 맡은 펍지 스튜디오는 테스트에 참여한 유저들의 의견을 수렴해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 LG에너지솔루션, 美발전사 비스트라에 ‘TR 1300’ 랙 첫 공급



LG에너지솔루션은 세계 최대 규모의 ESS 프로젝트에 ESS 배터리 신제품 ‘TR 1300’ 랙을 공급했다. ‘TR1300’은 설치 효율성, 에너지 밀도, 안전성이 강화된 제품이다(왼쪽 사진). 미국 비스트라가 캘리포니아주 몬트레이 카운티 모스랜드 지역에 가동 중인 모스랜드 발전소.

미국 비스트라가 캘리포니아주 몬트레이 카운티 모스랜드 지역에 가동 중인 모스랜드 발전소. 사진제공 | LG에너지솔루션

# LG엔솔, 세계 최대 ESS프로젝트에 배터리 공급

노후 화력 발전 설비 대체 프로젝트 단일 ESS 사이트 기준 세계 최대 “ESS 배터리 경쟁력 인정받았다” UL 글로벌 안전인증 테스트 통과 ESS 대규모 추가 수주 가능성 열려

LG에너지솔루션(대표 김중현)이 세계 최대 규모의 ESS(에너지저장장치) 프로젝트에 배터리 공급을 완료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미국 발전사인 비스트라(Vistra)가 캘리포니아주 몬트레이 카운티 북동부의 모스랜드 지역에 가동 중인 1.2GWh 규모의 전력망 ESS에 배터리 공급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단일 ESS 사이트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이며,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전력 사용량이 높은 피크시간대에 약 22만5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다.

비스트라는 지난해부터 캘리포니아 주의 ‘모스랜드 천연가스 발전소’의 퇴

역한 노후 화력 발전 설비를 전력용 ESS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배터리 공급은 해당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 ●ESS 배터리 신제품 ‘TR 1300’ 첫 공급

이번 프로젝트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혁신 기술을 담은 ESS 배터리 신제품인 ‘TR 1300’ 랙이 공급됐다.

기존에는 배터리 셀(Cell)을 외부 충격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개수로 묶어 프레임에 넣은 배터리 팩(Pack)과 팩이 모인 배터리 최종 조립단체인 랙(Rack)을 해당 ESS 사이트에 별도로 출하시킨 후, 현장에서 조립해 ESS 설치를 완료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반면 ‘TR 1300’ 랙은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배터리 팩을 배터리 랙에 설치 및 조립 완료한 후 ESS 사이트로 출하시켜 ESS 현장 설치 시간과 비용을 줄였다.

신영준 LG에너지솔루션 ESS 사업부장 전무는 “세계 최대 규모의 ESS 프로젝트에 배터리를 공급함으로써 차별화된 ESS 배터리의 경쟁력을 인정받았

다”며 “품질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글로벌 ESS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화재 안전성 입증…대규모 추가 수주 기대

ESS 저장장치의 핵심은 화재 안전성이다. ‘TR 1300’ 랙은 글로벌 안전인증 회사인 UL(Underwriters Laboratories)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열 폭주 화재 전이에 대한 안전성 시험 방법 표준인 ‘UL9540A’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화재는 인접한 배터리 랙으로 전파되지 않았다. 제품의 디자인 또한 미국 토목공학회 ASCE 7-16의 캘리포니아 건축 규정 기준에 부합해 지진과 같은 외부 환경 변화 중에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검증된 안전성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의 ESS 대규모 추가 수주 가능성도 열려있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으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배터리 기반의 ESS 설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SNE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미국 전력망 ESS 시장 규모는 6.5GWh로 글로벌 전력망 ESS 시장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연평균 54%의 성장으로 2025년에는 현재보다 약 9배 수준인 55.3GWh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의 세계 최대 규모 ESS 공급 완료 소식에 17일 3.34% 오른 83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 ●ESS

ESS(Energy Storage System)는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여주는 장치다.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되는 전력망용(Grid-scale), 사무실·학교·공장에 설치되는 상업용, 주택용, UPS(백업 전원 솔루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 KT, 금융시장 공략 본격화…웹케시그룹에 236억 지분 투자

기업간거래 금융사업 협력도 체결 클라우드 기반 ‘KT경리나라’ 출시 “금융 디지털 전환 시장 선도할 것”

KT가 금융 사업을 강화한다. KT는 웹케시그룹과 전략적 지분투자 및 기업간거래(B2B) 금융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웹케시그룹은 기업의 경영과 자금관리 업무를 혁신한 ‘경리나라’를 개발하는 등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B2B 핀테크 분야에서 입지를 다진 기업이다.

KT는 전략적 협업 관계 구축을 위해 웹케시그룹에 속한 웹케시, 비즈플레이, 로



구현모 KT 대표(오른쪽)와 석창규 웹케시 그룹 회장. 사진제공 | KT

움아이티 등 3개사를 대상으로 236억 원의 지분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소비자 대상(B2C) 금융 기업뱅크샐러드 지분 투

자에 이어 두 번째 금융 기업 투자행보다. KT는 케이뱅크, BC카드,뱅크샐러드, 웹케시그룹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B2C와 B2B 금융시장을 아우르는 사업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양사는 우선 ‘KT경리나라’와 ‘KT비즈플레이’를 출시할 계획이다. 기존 서비스에 가가지니 인사이트를 적용한 인공지능(AI) 기반 ‘아바타’ 솔루션을 추가한다. 고객사 경영진이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현재 자금 현황은?”하고 음성으로 요청하면 원하는 데이터를 분석해 화면에 보여주는 식이다.

KT는 KT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상품으로 출시해 이용 기

업의 니즈에 맞게 다양한 버전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KT 비즈플레이의 경우 지난 5월 KT클라우드 기반으로 웹과 앱 서비스 구성이 완료됐다. KT경리나라도 9월 중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출시될 계획이다.

두 회사는 또 소상공인을 위한 토털 경영 지원 솔루션 ‘KT세모가게’를 이달 중 출시할 계획이다.

구현모 KT 대표는 “BC카드와 케이뱅크 등 KT 그룹의 금융 노하우와 웹케시와 같은 전문 핀테크 기업과 시너지를 기반으로 금융 디지털전환(DX) 시장 선도 사업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말했다. 석창규 웹케시그룹 회장은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dionys@donga.com

## “건강한 다이어트, 철저한 개인 맞춤형 처방이 중요”

### 건강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여름휴가 시즌을 앞두고 한방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들의 내원이 이어지고 있다. 한의원에서는 한약으로 근육량 손실과 수분량 손실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불필요한 체지방 위주의 체중 감량을 도모하고 있다. 다이어트를 위한 한약은 철저하게 환자 개별 맞춤으로 처방해 만족도를 높이고 부작용 우려를 낮추고 있

다. 개별증상, 개별상태, 개별체질에 맞춰 처방한 한약은 장기복용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다.

가슴두근거림은 다이어트 한약과 양약에서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부작용이다. 철저한 개별처방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해 이상 증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체질 및 증상 맞춤 처방을 기반으로 제조해 복용 후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등의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으며 숙

면이 가능하도록 처방을 더한다.

일대일로 상담해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다이어트를 돕는 한의원에서는 몸과 체형까지 바로잡는 다이어트도 지원한다. 또한 대사를 활성화하고 요요방지 케어를 통해 요요현상이 쉽게 오지 않도록 돕고 있다.

한의원에서는 이밖에 국소 지방 분해와 사이즈 감소 및 부종 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방분해약침, 골반, 척추 틀어짐

등 체형 부정형을 개선하는 추나요법, 혈액순환 장애 개선과 부종, 노폐물 배설 및 지방분해 촉진을 유도하는 순환침 등의 다이어트를 지원하고 있다.

한의사의 역량이 다이어트의 효과와 직접 연관성을 지니는 만큼 사전에 꼼꼼히 따져본 후 한의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개인 맞춤형 처방이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목동 원케어한의원  
이창희 원장